

# 제주 올레길 생태문화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 기법 연구

허명진\* · 한봉호\*\* · 최진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 I. 서론

현대인들의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와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길들이 조성되었고,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는 걷기문화와 도보 관광이 확산되었으며, 그 수요도 다양화 되고 있다. 도보여행은 새로운 관광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형태로 도보여행길에 산재한 자원을 조사하여 해석하고,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길이 가지는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도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조성된 도보 관광길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길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보관광의 대표적 대상인 제주 올레길을 대상으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특성화하여 경관생태학적 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자원의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적 해석을 통하여 제주 올레길 자원에 대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 올레길의 부속섬(우도, 가파도, 추자도)을 제외한 본섬 23개 코스 395.2km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 올레길 유형 분류 및 특성화는 올레길 주변 대표적인 경관, 주요 토지이용, 식생 현황을 중심으로 비오톱유형을 조사하고, 비오톱 Mapping을 하였으며, 올레길 유형별 분포 비율과 특징적으로 분포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제주 올레길을 13개 유형으로 특성화하였다.

도보 관광자원 유형분류는 가시성을 기준으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2개의 대분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연자원은 해안자원, 화산지형자원, 지질자원, 수자원, 경관조망점 등 7개 중분류 유형, 인문자원은 전통생활문화자원, 농·어촌자원, 역사자원, 문화지원시설, 종교시설, 체험시설, 기타 자원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올레길 도보 관광자원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관생태학 구성체계에 따라 자연자원 중 해안자원, 화산지형자원, 지질자원, 수자원은 Geotope 자원, 식생자원, 생물서식지는 Biotope 자원 인문자원에 해당하는 전통생활문화자원, 농·어촌자원, 역사자원, 문화지원시설, 종교시설, 체험시설, 기

타 자원 등은 Anthropotope 자원으로 분류하여 특성화하였다. 경관조망점은 조망되는 경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다.

올레길 생태문화자원의 해석을 위해 경관생태학에 기반한 경관구조와 생물문화다양성을 해석하였다. 경관구조는 Geotope, Biotope, Anthropotope이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한다. 인간은 Geotope, Biotope 자원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종을 개발해 왔으며, 이는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관이 형성되었다(홍선기, 2013).

## III. 결과 및 고찰

### 1. 제주 올레길 자원 유형분류

올레길 도보 관광자원을 조사한 결과, 경관 조망점 138개소를 포함하여 총 569개 도보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었다. 도보 관광자원 569개소 중 자연자원 360개소, 인문자원 209개소가 분포하여 자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자연자원은 경관조망점 138개소, 식생자원, 69개소, 수자원 64개소, 해안자원 44개소, 화산지형자원 31개소, 생물서식지 7개소, 지질자원 7개소 순으로 분포하였다. 해안자원은 주로 해변과 해수욕장, 해안암반 자원이고, 식생자원은 난대림이 있는 숲길, 상록활엽수림과 제주 특산식물이 해당되었으며, 수자원은 해안가 용천수, 저류지, 연못 등이 해당되었다. 화산지형자원은 주로 오름이 해당되었다.

인문자원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생활문화자원 32개소, 농·어촌자원 81개소, 역사자원 47개소, 문화지원시설 17개소, 종교시설 19개소, 체험시설 8개소, 기타 자원 5개소 등이었다. 전통생활문화자원은 제주해녀, 해녀와 관련한 시설, 민간신앙 등이 해당되고, 농·어촌자원은 포구 및 등대, 향구 등의 시설, 역사자원은 봉수대 터, 진지 등이다.

### 2. 제주 올레길 자원 특성화

올레길에는 다양한 도보 관광자원들이 있었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자원들도 많이 분포하였다. 올레길 도보 관광자원 특성화 결과, Geotope 자원 254개소, Biotope 자원 83개소, Anthropotope 자원 232개소가 해당하였다. 올레길은 주로 해안

길을 따라 조성되어 Geotope 자원이 많이 분포하였고, Geotope 자원이 많은 구간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이 많이 분포하였으며, 바닷가 파도에 의해 형성된 해안자원이 다양하였기 때문이고, Anthropotope 자원이 많은 구간은 바다와 해안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온 섬지역 문화가 다양하게 분포하였기 때문이었다.

Geotope 자원은 인간과 생물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환경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한 해안 및 해변, 현무암 암반, 절벽, 폭포, 지질 및 주상절리, 오름 및 분화구, 수자원, 지형경관 조망점 등이 해당되어 경관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Biotope 자원은 Geotope을 기반환경으로 살고 있는 생물들과 서식장소가 해당되었고, 대경목 및 보호수, 꽃자왈, 숲길 및 식생군락지, 생물서식지, 식생경관 조망점 등으로 생태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Anthropotope 자원은 Geotope을 기반환경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해당되었다. 해녀 및 전통문화, 포구 및 등대, 체험시설, 사찰 및 교회, 군사 및 봉수시설, 기타 역사·문화시설, 문화경관 조망점이 해당되었고, 포구 및 등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 3. 제주 올레길 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기법

경관생태학적 해석은 Geotope, Biotope, Anthropotope으로 특성화된 자원들을 경관의 구조와 변화 측면에서 해석한다. Geotope 측면은 지형, 지질 해석, Biotope 측면은 생물, 생태계 구조 해석, Anthropotope 측면은 지역문화, 시각적 경관을 해석한다.

자연자원 중 해안 및 해변, 바위 및 절벽, 폭포, 지질 및 주상절리, 오름 및 분화구, 수자원 등은 Geotope 자원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용암지형과 지질, 바위암반 지형, 그리고 그 곳에서 서식하는 해안식생, 야생 동·식물들이 있고, 과거 해안을 이용하던 인간들이 조성한 시설 및 그와 관련한 문화들이 있다. 대경목과 보호수, 꽃자왈, 숲길, 식생군락지, 생물서식지는 Biotope 자원에 해당하지만, 생물서식 기반환경, 서식지 지형, 미기후 등 Geotope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무에 얽힌 전설, 당산목, 신목 등은 Anthropotope 특성이다. 해녀 및 전통문화, 포구 및 등대, 체험시설, 사찰 및 교회, 군사 및 봉수시설, 역사·문화시설 등은 Anthropotope 자원이지만 포구의 해안지형, 건축물 입지 지형 등은 Geotope 특성에 해당하고, 그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은 Biotope 특성이다. 그리고 어업생활문화, 민간신앙, 군사시설 등 인간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과 문화는 Anthropotope 특성에 해당한다.

각 자원들은 Geotope, Biotope, Anthropotope 으로 구분되지만, Geotope, Biotope 자원들은 인간행태적 요인들이 작용하며, Biotope 자원은 Geotope 조건과 관련되고, 경관구조 속에서는

Geotope, Biotope, Anthropotope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경관구조가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관생태학적 해석을 통하여 자원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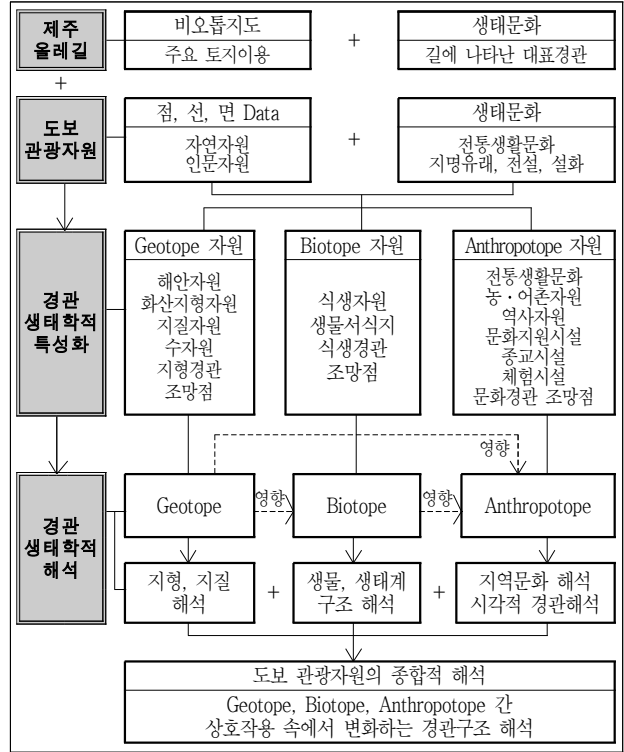


그림 1. 제주 올레길 생태문화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 기법

## I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올레길에 제주만의 자연과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원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해석 기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대상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었지만,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같은 공간이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경관구조와 생물문화다양성을 해석할 수 있다. 자원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올레길 유형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올레를 걷는 도보 관광객들은 자원들의 스토리를 알아가면서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고, 올레길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이용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홍선기(2013) 섬의 생태적 정체성과 탈경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접점에서의 이해, 도서문화 제 1집 329-349.